

사  
료  
가  
격  
의  
전  
망

조           홍           래  
<한국 사료협회 기획부장>

지난 12월 4일 제 3차 배합사료가격 조정 후 배합사료의 품질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나 축산물가격이 저조하여 생산비 이하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축사육수의 감소현상이 야기되어 배합사료수요량이 15%~20%가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료공급면에 있어서는 주원료인 옥수수충분량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국산어분의 유통이 원활하여 가격이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산곡류 및 강류사료가격은 2월초에 소맥분 가격인상을 계기로 더욱 폭귀현상과 가격폭등을 갖어와서 앞으로 사료수급면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되리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번호에서는 소맥가공량과 소맥피 생산량을 분석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보기로 한다.

1. 소맥가공량과 소맥피 생산 추세

74.2월 초 정부의 소맥분 가격인상조치로 소맥분 가공량이 급격히 격감되었다. 이와 같이 소맥가공량이 격감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소맥분 가격의 인상으로 소맥분가격이 쌀이나 기타 잡곡 가격보다 비싸졌고, 둘째 소맥분 가격이 인상될 것을 예측하여 소맥분 수요자들이 당분간 필요로하는 소맥분을 매집하였고, 셋째 소맥분을 기타 목적에 사용치 못하도록 용도제한을 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이와 같이 소맥분 가공량의 격감과 73. 10. 20일자로 소맥분의 수율을 77%에서 80%로 3%를 올리므로 소맥피 생산량은 23%에서 20%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따라서 74. 1월에는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약 170,000%이 가공되어 34,000톤의 소맥피가 생산되어 1972~1973년도 월평균 소맥피 생산량인 34,000톤 수준이 공급되었으나 2월의 소맥가공량은 100,000톤 이하로 예상되므로 여기서 소맥피 생산량은 20,000톤 밖에 생산되지 않을 것이고 3월의 소맥가공 예상량이 120,000~130,000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25,000톤 밖에 부산물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소맥피 공급부족으로 사료수급상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맥가공량이 격감되면 74. 1~3월의 월평균 소맥피 생산량은 26,330톤(73. 1390가마니)이며 이와같은 물량은 1972년도 평균생산량에 비하여 76.2%, 1973년도 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79.4%로서 배합사료생산에 있어서도 기타 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류사료공급 부족때문에 계획대로의 배합사료 생산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지역별 소맥가공비율을 보면 제분실적은 경인 충청지역이 50.1%, 부산 경남지역이 43.6%, 호남지구가 6.3%인데 반하여 사료수요는 경인 충청지역이 67.1%, 부산 경상지역이 25.5%로서 제분공장과 사료공장 및 사료수요지역별 생산능력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소맥피가 부산으로부터 경인 충청지역으로 역

〈표 1〉 소 맥 가 공 량 및 소 맥 피 생 산 량 추 계      단위 : 톤

	1970		1971		1972		1973		1974	
	소 맥 가공량	소맥피 생산량	소 맥 가공량	소맥피 생산량	소 맥 가공량	소맥피 생산량	소 맥 가공량	소맥피 생산량	소 맥 가공량	소맥피 생산량
1	71,526	16,450	83,042	19,100	130,712	30,064	147,788	33,991	170,000	34,000
2	78,520	18,060	111,964	25,752	133,844	30,784	130,056	29,913	100,000	20,000
3	84,892	19,525	121,584	27,964	138,135	31,771	151,739	34,900	125,000	25,000
4	92,550	21,287	126,175	29,020	157,685	36,268	121,889	28,035		
5	89,540	20,594	135,657	31,201	191,495	44,044	147,326	33,885		
6	93,115	21,416	126,473	27,089	168,333	38,717	149,712	34,434		
7	98,586	22,675	99,344	22,849	147,950	34,029	151,856	34,927		
8	105,881	24,353	91,366	21,014	165,143	37,983	153,227	35,242		
9	98,550	22,666	119,430	27,469	158,532	36,463	161,232	37,083		
10	117,563	27,040	118,393	27,230	135,085	31,070	155,618	35,792		
11	92,748	21,332	105,528	24,271	134,740	30,990	132,912	26,582		
12	89,238	20,625	113,785	26,171	141,102	32,454	165,684	33,137		
계	1,112,709	255,903	1,352,140	310,992	1,802,751	414,633	1,769,039	397,921	395,000	79,000
월평균 생산량	92,726	21,327	112,678	25,916	150,229	34,553	147,420	33,160	131,666	26,330
" 증가율		100		121.6		162.0		155.5		
74/72						100				76.2%
74/73								100		79.4%

수송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같이 에너지파동으로 수송상 애로가 있는 여건 하에서의 역수송은 문제가 되겠으나 불가피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양곡수급상 대맥을 상당량 가공중에 있으므로 여기서 생산될 대맥강의 적정한 배정과 효율적인 이용을 기한다면 양돈 및 축우사료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시기에 맞도록 조정되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어려운 때일 수록 서로 지혜를 모아 서로 협력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

## 2. 국내 사료가격 추세

서울지방의 1974. 2. 15 현재 단미사료가격을 1/15 현재 가격과 비교하여 보면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산옥수수 가격이 kg당 13원이나 상승하였다. 이는 2월초에 정부가 소맥분가격을 60% 인상하였기 때문에 소맥분 수요가 일부 국산 옥수수로 전환된 반면 그간에 국산 옥수수 가격이 수입 옥수수 가격보다 어

느 정도 저렴하였기 때문에 자가배합양축가가 많아져 국산 옥수수의 재고가 격감되었고 또한 공업용 옥수수와 경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대두박 가격이 kg당 7.06원이 상승한 것은 동방유량(주)에서 공급하는 대두박이 현재까지 톤당 \$254.87짜리 대두에서 착유된 대두박으로 공급되었으나 1월하순 부터는 톤당 \$310짜리 대두에서 생산되는 대두박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부지정가격은 kg당 140원선이나 이밖에 어분을 비롯한 기타 단백질사료가 포함세를 이루고 원활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정가격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채종박, 야자박, 구루텐등 식물성 박류가격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캐나다산 채종박 4,500톤과 채종실 7,500톤이 2월말경에 입항되므로 잡박류의 시세는 이와같은 채종박의 공급량 증가로 당분간은 포함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1월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격이 등귀한 것은 강류사료이다. 소맥피는 가격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입가격은 운임인상으로 부산지역으로부터 역수송되는 소맥피는 수송비등 비용만이 kg당

〈표 2〉 단미 사료가격 추세

종	별	'74 1	2	상승폭
옥수수	(국산)	60.00	73.00	13.00
옥수수	(도입)	64.40	64.40	0
밀		—	64.50	
보리		—	61.00	
대두	리박	126.00	133.66	7.06
임박		95.50	94.20	△1.30
호박	마박	95.75	95.80	0.05
아마	박	85.00	85.00	0
채종	박	81.25	83.00	1.75
야자	박	60.75	70.00	9.25
고추	씨박	—	78.25	—
면실	박	—	69.00	—
소맥	구루텐	136.67	137.75	1.08
옥수수	구루텐	116.67	117.50	0.83
밀배	아박	—	63.00	—
옥수수	배아박	—	62.00	—
옥수수	전분박	—	43.00	—
장유	유박	—	25.00	—
유박	채미	—	60.00	—
설소	맥채	54.00	61.50	7.50
맥	채	50.00	55.00	5.00
세	실	—	56.00	—
소	실	54.00	58.00	4.00
소	맥피	20.08	22.08	2.00
탈지	강	44.72	50.33	5.61
맥	강	40.00	47.50	7.50
말	분	47.00	50.67	3.67
밀	강	—	20.00	—
옥	피	—	32.00	—
어	분(상)	146.66	140.00	△6.66
어	분(중)	118.75	117.50	△1.25
어	분(하)	95.00	95.00	—
우	지	166.00	175.30	9.30
우	모	140.00	140.00	—
옥	분	113.34	140.00	26.66
양	옥	—	93.00	—
번	맥	—	130.00	—
골	분	67.50	70.00	2.50
패	분	6.88	7.00	0.12
식	염	26.25	26.67	0.42
트	리카호스	135.00	135.00	0
인	산칼슘	95.00	83.30	△11.70
벤	토나이트	16.50	17.00	0.50
조	라이트	17.00	18.00	1.00
아	카시아	45.00	45.00	0

1~2월 양등되었으나 탈지강, 맥강 및 말분등 거래가격을 보면 탈지강 11%, 맥강 15%, 말분 7%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러나 어분은 재고량이 풍부하고 단백질 사료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실정이며 가격도 보합 내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단미사료가격을 보면 〈표 2〉와 같다.

### 3. 사료가격의 국제시세

1974. 1. 18 현재 미국산 옥수수(3급품 기준)가격은 C&F 톤당 가격이 \$170 선이었으나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FOB가격이 약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의 하락으로 \$5 이상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산지 옥수수 가격은 수확시기까지 조금씩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임여하에 따라 앞으로 가격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박 가격은 \$280에서 \$235까지 하락하고 있으나 대두가격이 그다지 변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 대두박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표 3〉 국제시장 가격조사 단위: \$/톤당

품	목	국제시세 (\$)		원산지	선적조건
		FOB	C&F (\$)		
황색옥수수(3급품)		131.49	33164.49	미	국 2월
"	( " )	131.30	33164.30	미	국 6월
대두(2급품)		255.38	33288.38	미	국 2월
"	( " )	273.20	33306.20	미	국 10월
대두박(44%)		190	45235.00	미	국 10월
옥골분(50%)		295		미도호	국 3~4월

### 4. 사료원료 도입계획

기 선매 옥수수 288,000톤중 도착분을 제외한 옥수수 도입계획은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월초까지 국내에 도착시켜 5월까지 사용하고 잔여 173,000%은 4월부터 7월까지 선적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파제는 10~12월(3개월)에 사용할 약 100,000톤의 추가 사료곡물구매로

서 우리는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급 상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이 신평 출회시까지 사용할 사료곡물의 구매방안은 기 선매 옥수수중 3월도착 예정분 부터는 배합사료 수요가 감소하여 예정대로 도입된다면 자금사정과 옥수수의 재고격증으로 인한 체화와 저장능력 부족 및 금리가 증때문에 조기 인수가 어려움으로 도착시기를 연장하여 국내 수요에 맞도록 차례로 연장시켜 7월까지 도착케하여 9월까지 사용하고 10월이후 사용분을 8월에 구매하는 안과 기선

매 옥수수를 10월까지 연장사용하고 태국산옥수수, 호주산 수수, 텍사스산 수수 등을 시기에 맞도록 약 100,000톤을 추가 구매하여 기선매 옥수수와 같이 미국산 신평 옥수수 출회분 도입시까지 사용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농수산부에 구체적인 건의한바 있으므로 수급상 차질이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74년도에는 현행 배합사료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공급되리라 전망된다.

〈표 4〉 사료원료 도입계획

품 명	수 량	단가(C&F\$)	모 선 명	입 항 지	도착예정	원 산 지
옥수수	117,475.200톤	146.60\$	켄 세 이	인 천	3. 10	미 국
	19,913.600	146.60	아 티 카	"	2. 23	"
	18,309.277	146.60	알 타이 마루	부 산	2. 8	"
	23,665.180	149.80	재 니 스	인 천	3. 15	"
	16,000	153.15	크리스탈리이드	인천 · 군산	3. 초	"
	15,000	149.80	브 레 빌	부 산	3. 초	"
계	110,363.258					
채종박	4,500	200	아리스타젤로스 엑스피오트	인 천	2. 28	카 나 다

### 5. 규격품 원료의 사용권장

최근 국내외적인 사료원료가격의 앙등을 기화로 원료사료 생산업체가 규격품의 원료를 생산하지 않고 규격에 맞지는 않으나 신평원료를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배합사료 공장이나 양축업자는 신평원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원인은 축산업이 현재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고 연명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국내 어분(단백질 60% 이상의 규격품)가격이 잡어가격에 비하여 단백질 %당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규격품이지만 잡어와의 경쟁으로 이윤추구가 어려워 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며, 급기야는 생존하기 위하여 규격품 어분에 기타 값싼 원료를 첨가하여 단백질을 맞춤으로서 싸게 판매하고 있는 어분공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수요자는 더욱더 규격품을 꺼리고 잡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같

이 규격품이 소외되고 규격품 아닌 불량품이 득세하여서는 축산업의 앞날이 아득하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규격품이 아닌 신평 원료는 대개 가축에 유해로운 물질이 함유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량어분은 염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직염중독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는 사료공장이나 양축가가 규격품의 어분을 사용함으로써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인산칼슘제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2~3년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인(P)을 공급하기 위하여 골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인산칼슘제를 수입하고 있으며 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는 인산질비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된 인광석으로부터 인산칼슘제가 생산공급되고 있다. 사료협회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표 5〉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산칼슘제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불소(F)의 함량이다.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산칼

습제의 대다수가 국제규격에 비하여 불소함량이 20~30배가 초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통되고 있는 인산칼습제의 불소함량이 0.09%에서 3.3%까지 폭이 넓다. 또한 가격면에 있어서도 80원에서 135원까지 가격폭도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불소의 과다급여가 가축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으나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산칼습제의 규격(불소함량)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제품생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메이커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규격을 잘 알아서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규격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불량품을 제조판매하였을 때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중대시하고 제품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소신과 용기가 있어야 함을 통감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불량원료를 하루속히 우리 주위에서 추방하여야 하겠다.

〈표 5〉 인산칼습제의 화학적 조성 단위·%

제 품 명	Ca	P	F
A	30.2	15.0	3.3
B	38.4	0.56	0.17
C	34.2	0.69	0.80
D	39.6	0.51	0.09
E	0.55	0.54	0.11
F	0.001	0.51	0.09
G	24.0	11.5	2.67
H	21.7	7.2	2.26
I	3.5	3.56	—
J	32.6	18.1	0.09
K	27.7	15.5	2.58
L	20.5	14.2	0.07
M	25.9	13.8	2.22
N	26.2	14.2	2.43

〈표 6〉 인산칼습제의 불소의 국제규격

미국	0.15%
일본	0.12%

〈표 7〉 거래되고 있는 인산칼습 제품명

인광석, 동제잔유물, 동제스로그, 한철생석회, 동제내회제, 한철스로그, 해성호스, 경기호스 Y, 탁양스타치, T.P.e. 칼호스티, 이노시톨, 동국린칼, 동국호스

## 6. 강류공급부족에 대한 원료별 배합범위 조정

가. 현재 곡류사료, 동식물성 단백질사료 및 기타 부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강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류부족대책은 여러가지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당면대책은 확보된 원료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인 대책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수입사료를 원료로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세관에서 통관시켜 줄 때에 실시되고 있는 사료의 배합범위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수입원료가 사료용도 이외로 유용되지 않고 전량 사료를 공급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가 규정한 사료의 배합범위 및 분쇄도에 따라 세관에서는 수입사료 원료를 보체실용특허를 받은 배합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제조하였을 때 관세를 면제하여 통관하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부에서는 통관의 보다 합리화를 위하여 학계, 업계 등에 배합사료의 배합범위 및 분쇄도 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므로 사료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지면을 통하여 참고로 소개드리고자 한다.

1. 사료의 배합범위 및 분쇄도를 규정하는 목적은 수입사료의 유용방지와 외화절약 및 사료의 자급도 제고에 있는 것이므로,

가. 수입사료의 배합한계(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유동성이 있는 내국자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합리적인 사료생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내국자재(국산곡류, 식물성박류 및 동물성사료 기타 사료)를 세목별로 제한하는 것은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사료의 품질을 보장하려면 배합범위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성분량한도(공정규격)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사료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 '73.2. 20일자로 수입원료의 사용량을 제한한 결과 소맥피의 체화현상은 해소시켰으나 식량수급면에서 국내곡류의 사료전용량이 극히 저조하였기 때문에 국산곡류 부족으로 사

료의 에너지공급 부족을 초래한 반면 다른 이  
유도 있겠으나 강류사료파동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사료될 뿐만아니라

라, 배합범위를 세분하여 규정할 경우 영양  
적인면 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오늘날과 같이  
원료가격이나 물량면에서 변동이 극심한 현실  
하에서는 최소가격 배합율의 작성을 어렵게하  
여 오히려 관계당국에서 실시하는 배합사료통  
관이나 배합사료 생산절차 수속 등의 번잡으  
로 합리적 배합사료 생산이 저해될 우려가 있  
으며 특히 상호대체가 어느정도 가능시되는 식  
물성 박류와 동물성 사료의 배합범위(상한선  
하한선 한도)를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사료  
되오니 수입사료에 한하여 배합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사료의 배합범위 및 분쇄도 조정 건  
의(안)

가. 수입곡류

- 1) 옥추 육계용 종계용 우돈의 자축용:65% 이하
- 2) 대추, 성계용 : 56% 이하
- 3) 우돈의 육성 성축용 : 46% 이하
- 4) 농축사료 : 75% 이하

나. 식물성 박류 및 동물성 사료

- 1) 양계 및 우돈용 배합사료 : 20% 이하
- 2) 농축사료  
에너지 농축사료 : 20% 이하  
단백질 농축사료 : 60% 이하
- 3) 기초사료 : 95% 이하(2종 이상 혼합 요)

다. 분쇄도 : 15 메쉬 이상

라. 국내 사료자원(특히 곡류)의 이용도 제  
고를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가 확보된 원료수  
급사정을 감안하여 수입사료의 배합범위내에  
서 조정 사용토록 한다.

超大型      필취 88A  
하이브로

**양지농장부화장**

55-4854, 4954

제 1 종계장 : 서울·성동구방이동 148번지

제 2 종계장 : 경기도광주시동부면천현리 456